

*하느님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제가 24살이었을 때, 한 번은 저는 가정의를 만나러 간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기실에서, 낙태를 임신의 하나의 선택으로 묘사한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내가 의사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에게 낙태를 권유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들이 선택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그것이 그것이었습니다.

- 며칠 후, 저는 친구 스테파니 그레이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제가 의사에게, 그녀의 입장이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편지를 쓰라고 권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제 가정의에게 그녀와 이런 대화를 나눌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안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편하지가 않아서 망설였습니다; 이런 글을 써본 적도 없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이 잘 못 되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힘든 것이어서 그녀의 제안에 조금 화가나기까지 했습니다.
- 저는 2004년 7월2일자 이 편지를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저는 먼저 가정의에게 우리의 대화가 그녀를 불편하게 했는지에 대해 사과하고 나서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낙태에 대해 불편해하면서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가? 만약 당신이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왜 다른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왜 환자들을 다룰 때 당신 자신의 그 부분을 죽이는가? 또한, 저는 진심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를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기 없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몇몇이 정치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검열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제1독서로 가서 니네베 성읍을 상대로 설교 하라는 요나의부르심을 들어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요나 3:1-3).

- 부름의 명확성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는 애매한 점이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때때로 마음속에 어려운 진실을 말하라고 하느님께로 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 명확함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전에 한 번 요나를 부르셨지만, 요나가 그 부르심에 저항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고, 본문에는 세번에 걸쳐 ‘주님을 피하여’ 라고 말합니다(요나1:3,10).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명에 보내시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요나가 하느님께 저항하여 싸우고, 마침내 죽음과 부활의 경험 (John Bergsma & Brant Pitre, *A Catholic Introduction to the Bible: The Old Testament*, 922)한 후에야 그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총으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는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요나3:3-4).

- 니네베는 요나의 적임을 명심하십시오. 요나는 유대인이며 니네베는 아시리아 적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세계관이 하느님의 세계관과 반대된다는 의미에서 적들을 상대로 설교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긴장감이 감돌기도 합니다.
- 그리고 때때로 정의의 말은 요나처럼강할 때도 있습니다: ‘사십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2주 전, 한 젊은 아가씨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그녀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구약 성서에서처럼 정의로우신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자비로우신 분인가? 정답은 둘 다 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와 정의는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인 일을 하시고, 우리는 때로는 의로움으로, 또 어쩔 때는 자비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로버트 스택폴 박사는 “ 하느님의 정의는 항상 자비를 베풀며, 하느님의 자비는 결코 부당하지 않다”

(<https://www.thedivinemercy.org/articles/part-1-confusion-reigns>).고 말합니다.

-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죄의식과 정의감을 가질 때까지 자비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초등학생 때, 저는 나태한 협박을 하는 한 선생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었을 때, 그녀가 “좋아, 수업 끝나고 1분동안 구금이야.”라고 외쳤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우...” 그들은 그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독서 마지막 부분에,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요나 3:5,10).

- 사람들은 하느님께서이 바라시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도덕적인 태도를 바꾸고 그들의 잘 못을 사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서의 정의의 하느님, 또한 자비의 하느님이심을 봅니다. 사실, 이단 국가에 대한 하느님의 거듭된 용서는 때때로 일부 유대인들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적을 벌하시기를 원했지만, 그분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The Didache Bible*, 1149).

우리는 지금 매년 오는 프로라이프(낙태 반대) 시즌을 맞이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교구는 수년 동안 낙태 반대에 대해 이야기 해왔고 우리는 전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성장과 도전하고 싶은지를 물을 때마다, 그들은 항상 “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낙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 태아를 죽이는 것을 멈추는 것; 2)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Worldometers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1월 22일까지의 세계 사망원인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감: 29K
2. 자살: 63K
3. 교통사고: 80K
4. 에이즈: 99K
5. 알코올: 148K
6. COVID-19: 272K
7. 흡연: 297K

8. 암: 488K

9. 낙태: 2.5M

이에 따르면 낙태가 세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COVID-19 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며 우리는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낙태를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낙태가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COVID-19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말합니다. 왜 부조화죠?
- 낙태의 1.5%가 강간과 근친상간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고(<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9/05/24/rape-and-incest-account-few-abortion-so-why-all-attention/1211175001/>), 이것이 낙태를 허용하는 일반적인 이유이지만, 그래프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들은 그들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들을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들은 74%의 사건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생명을 앗아가는 타당한 이유입니까?
- 일관성을 위해, 같은 기간 동안 낙태보다 COVID-19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면, 나는 그것을 끝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 에너지,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COVID-19에 걸리는 것과 낙태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COVID-19에 걸리는 것은 대개 고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주의 할 수는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의도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낙태는 삶을 직접 앗아가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법에 의해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때문에 우리와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메시지도 분명하고, 우리는 그것과 씨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써 우리의 의무입니다.

-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해 가장 먼저 *40 Days for Life* 에 동참할 것을 고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사진 몇 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생명권을 옹호하고, 사람들과 맞서지 않고, 낙태의 종식을 위해 묵묵히 기도합니다. 신청서는 다음주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 질 것입니다.
- 제가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낙태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년 전, 저는 낙태의 현실을 보여주자고 제안했고(<http://thejustmeasure.ca/2019/09/22/should-there-be-separation-of-church-and-state/>),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사진을 보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먼저 경고를 해야한다는 주의와 함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 모든 죽음은 비극적이며, 모든 살인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가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무시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조지 플로이드의 목에 걸린 장교의 무릎을 보았을 때, 세상은 당연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낙태가 실제로 무엇인지 볼 용기가 생기면, 우리의 무언가가 변하게 됩니다.-그것이 제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제가 그것을 보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군중들과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http://thejustmeasure.ca/2020/02/09/stopping-42-million-murders/>). 우리가 사망 원인의 그래프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태에 의해 죽은 아기들이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들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요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랐고, 니네베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한 짧은
증언으로 마칩니다.